

피부보존 유방절제술후 횡복직근 유리피판에 의한 유방재건술

안희창 · 최은규* · 신우진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구리병원 성형외과학교실

목적 : 유방절제술후 횡복직근유리피판에 의한 유방재건술은 유방암에 의한 결손을 재건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미용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인 피부의 보존에 대해 슬기가 발전되는 추세이다. 이 논문은 피부보존유방절제술후 횡복직근유리피판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기존의 방법과 차이를 비교하여 저자의 경험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대상 및 방법 : 1999년 1월부터 2001년 3월까지 15명의 환자에서 피부보존유방절제술후 횡복직근유리피판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시행하였다. 환자의 연령은 29세부터 58세였으며, 평균 연령은 42세였다. 유방암 발생부위는 우측이 12예였으며, 좌측이 2예, 양측이 1예였다. 수여부 혈관으로는 흉배동정맥을 이용하였고, 공여부 혈관으로는 동측 심부하복동정맥을 이용하였다. 우선 유륜 주위에 절개를 가하여 유방암 종물을 제거하였으며, 액와부의 절개후 흉배혈관과 주변을 박리한 후 탈피시킨 횡복직근유리피판을 액와부 절개를 통해 가슴의 피부 밑에 삽입하였다.

결과 : 15명의 환자에서 재건은 성공적이었다. 피판의 소실은 없었으며, 공여부의 합병증도 없었다. 무엇보다 유방절제에 따른 반흔을 감출 수 있었고 유방하주름이 소실되지 않아서, 미용적으로도 기존의 방법보다 만족스러웠다.

결론 : 피부보존유방절제술후 횡복직근유리피판에 의한 유방재건술은 기존의 횡복직근유리피판술에 비해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반흔이 유륜주위로 국한되고 정상적인 색깔과 질감을 유지하므로 미용적으로 만족할만하다. 둘째, 유방주위의 피부를 보존함으로써 감각이 보다 많이 보존된다. 셋째, 유방하주름의 유지가 용이하며, 유방의 하수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 넷째, 피부보존유방절제술후 횡복직근유리피판에 의한 유방재건시 반대편 유방에 수술적 조작을 가하지 않고도 대칭성을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부보존유방절제술후 횡복직근유리피판에 의한 유방재건술은 기존의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문헌 고찰과 함께 그 유용성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